

# 외대학보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RESS

<제765호>

2000년 5월 30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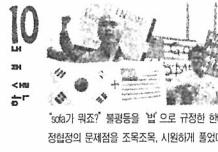


3 와대가 들썩~머거리,  
불거리, 어려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행사...  
5 서울대학교는 대동제로 활기찬  
한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 사진작업인식을 태고  
다시 대동제로 가볼까요?



6 한총련 출범식이 무섭다고? 아! No! 우리 대학  
생들의 죽어의 정인걸요. 잠언지 알아볼까요?

9 외대인들의 동일 의지를 모방해  
멀자는 통일노래방이었어 당시가  
얼마다. 유태와 백씨 열 한잔에.  
그러나 내내온 통일이 되어서  
이젠 알아들은면 하는 행사.  
노래 숙 우리들이 함께 구는  
통일꿈을 담아보았다.



10 정성조업 몇달만에 다시 피업에  
돌입한 고려수수 노동조합.  
회사속의 임금제로 노조분체공장에  
한 조조업은 끝나기도까지는 등  
사회가 억압되고 있는데...  
힘겨울 속에서 이제 깊자르 모는  
싸움을 전개하는 그들을 만나고 있다.

## 8기 한총련 출범식 '축제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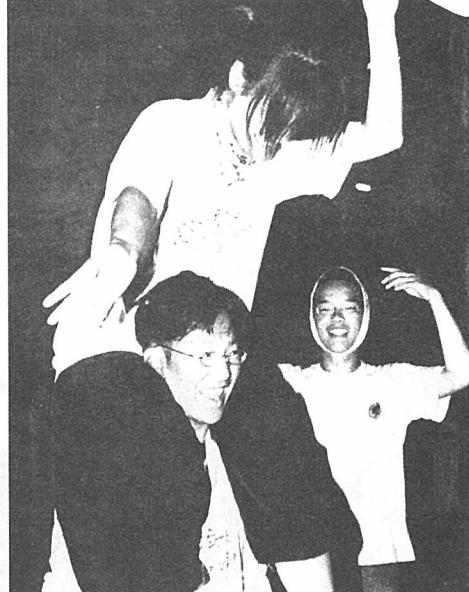
'100만 학생들의 축제의 정' 경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범식이 부산대학교에서 우리학교 앞 배움터 150여 명을 포함, 전국에서 모인 1만명이 넘는 명의 학생들, 조국립일방민족(한국민족), 민족주의적 평등질국민연합(전국연합) 등 각계 대학생 단체들 그리고 부산 지역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지난 26일(금)부터 28일(일)까지 3일 동안 광활하게 치러졌다.

96년 전부로 10년이 있었던 4기 한총련 출범식 이후 5, 6, 7기 한총련은 정권의 탄압으로 출범식 장소를 옮기거나 악수으로 치러지거나, 제 때대로 된 출범식을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8기 한총련 출범식은 3년만에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치러진 출범식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2주 3일간 진행된 출범식은 26일(금) 전야제와 27일(토) 민중연대 한미당과 본 행사로 노동자·농민·여성·축구대회·새내기 한미당, 28일(일) 시민행동연합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되기도 했다.

출범식 본 행사 전날인 26일(금) 진행된 전야제에서 리비아 혁명원에서 이스라엘리자재비에서는 8기 한총련의 출범을 축하했다. 또한 리비아 혁명원에서는 한총련에게 '미국주와의 반대투쟁에 대한 감사의사를 8기 한총련 이사회(조직부)와 충성학생회장(군)에게 전달하기

최종기자 기자 hobbang103@hanmail.net



7기 한총련 출범식에 참석한 우리학교 학생 150명은 포함하여 전국대학생들 약 1만 2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 포럼에서 부여까지 주어진 철수의 내용으로 거리행진을 한 후 해선했다.

이번 학생들은 오후 4시경부터 7시경까지 남포동에서 부여까지 주어진 철수의 내용으로 거리행진을 한 후 해선했다.

이번 학생들은 오후 4시경부터 7시경까지 남포동에서 부여까지 주어진 철수의 내용으로 거리행진을 한 후 해선했다.

최종기자 기자 hobbang103@hanmail.net

서울 지난주, 용인 이번주 대동제

서울배움터 대동제가 지난 22일(월)부터 25일(목)까지 4일간 배움터 곳곳에서 열렸다. 대동제 첫날인 23일(월) 노천극장에서 열린 정기총회는 600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대상족수 확인(△전체학생대표자대회)과 보고·시회, 학자정제 발언 등이 진행되었다. 이번 대동제에는 주점·가요제·체육행사·월드랠리·봉بال노래방·한미당·반미기자회·성폭력학회·운동 등을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한편 용인배움터 대동제가 오는 31일(수)부터 6월 2일(금)까지 3일간 배움터 곳곳에서 '우리문화의 힘'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31일(수)에는 24시간 학생회관 앞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대동제는 1일(목) 평양의 대회와 자주교류·성장을 위한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 1학기 정총, 대동제 전야제와 함께 치뤄져

대동제 참여에 크게 진행된 이번 전야제는 전인대학생 축하행사 및 학교 구성원 1:1 친목행사 보고식으로 진행됐다. '한전인' 탈북민우리의 반 미투행을 주제로 사회단체·발언인과 본관전시 부문에 중장기정부계획회를 주제로 대동제에 맞춰 이어졌다.

이날 전야제는 충남·충북·경기·경상·전북·전남·부산·제주 등 7개 대학에서 진행된 대동제 전야제로 대동제에 맞춰 이어졌다.

이날 전야제는 충남·충북·경기·경상·전북·전남·부산·제주 등 7개 대학에서 진행된 대동제 전야제로 대동제에 맞춰 이어졌다.

## 2일(금), 상대 정총 개최

상대 학생회는 오는 6월 29일(화) 5시 노천극장에서 상반기 경기총회를 개최한다.

'희망찬 어제동무, 우리의 더 큰 울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경기총회는 1학기 활동과 대동제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전접수로 △희

망집기 폐지들이 행사 △교사가 진행되며 이어지는 본집에서는 상상대회 보고 △학내·학외장내 분석 △결의의언어 미지근으로 진행되는 봄마당에서는 상대제 각과 학회, 소모임 등 모든 단위가 참가하는 정기자랑이 열린다.

## 사회대 계열제 철폐위한 기조처 항의시위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는 지난 23일(화) 계열제 철폐를 요구하며 기초조직체 향의 시위를 진행했다.

경상대학교와 정치외교학과 학과별 명으로 과제제를 요구하는 공문에 대한 기조처의 답변에 항의해 열린 이번 항의시위에는 50여명의 사회대 소속 학생들이 참여해 정기자랑의 과제제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기조처 물품에 붙이고 기조처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기조처 항의시위에 이어진 '계열제 철폐를 위한 사회대 제육체회'에서는 대본과 죽구, 밭구, 이어달리기, 단체 출범기념 행사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사회대 학생회장 황인호(정치외교 4군)은 "사회대 전 구성원이 과제제를 협의한 상태"라며 "충분한 토론시간과 필요하다는 물의 기조제 단편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 김문성군 집회·시위법 위반 구속

지난 6월 29일 김문성(서양·서민아이 4군) 의원과 구치소에 구속수감에 조사중이다.

김군은 지난 4월 30일 110주년 노동절 집회를 향해 후교 중·외교부 역에서 신임평가에 맞춰 청량리 경찰서에 연행된 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특별 공무

집행방해를 이유로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서민아이는 그 명의로 번호사를 통해 퇴원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지난 대동제 기간 동안 서민아에게 학생회와 함께 주권을 통해 별다른 후원금과 새내기들의 편지 등을 전해줄 계획이다.

## 중국어과, 동문인의 밤 3일

중국어과 '동문인의 밤' 행사가 오는 6월 3일(토) 5시 대현원 소강당에서 개최된다.

50명이 넘는 이번 행사는 △기수별 소개 △원어노래페스티벌 △디파티 순

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중국어과 학생회장 이영석(3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그동안 소원했던 동문들과 연계를 강화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 2일까지 계절학기 수강신청 접수

계절학기 수강신청이 지난 29일(일)부터 오는 29일(금)까지 5일간 실시된다. 이번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지난 98년에 이어 10년째로 진행되며 남북교수는 제일원정원 행정 외교부입니다. 수업료는 작년보다 9.8% 오른 1학점당 64,000원

이며 등록비는 10,000원을 내야한다. 수강인원이 30명 미만인 과목은 폐강되며 수강료는 환원된다. 수강료 환불기간은 오는 6월 17일(수)부터 6월 19일(금)까지이다. 자세한 문의는 교과부,

"우리가 먼저 힘을 모아 통일 한반 해봅시다"라고 외치는 이 사람은 용인배움터 세계민족학술문화축전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송장혁군이다. 동아인 그는 "통일한 걸 알아 보여요"하며 말을 끊었다.

그는 요즘 세민전 준비에 앞서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일이 생겼다. 그것은 바로 대동제 기간동안에 추진 할 자주교류 사업이다. 자주교류 사업에 대해 그는 "그동안 가장 기ppard고 면 나온 북한이 있으며 북한은 소식 조차 알 수 없는 심이었다. 그러나 각 고의 노력으로 우리는 남북정상회담 까지 성사시켰다. 이런 시장에서 북한을 적이 아닌 동로로 봐야한다"라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통일을 위해 노력했던 우리와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둘다 봐야한다. 이번 대동제 기간에 이 문제를 학생들에게 다룬다고 그 대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광복의 대와 자주교류 사업 추진은 7천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할 것이다"라며 이번 대동제 기간동안에 있을 자주교류 사업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둘은 마음으로 하나님이나 살피해 나온다. "우선 남님복되다는 말에 걸맞는 통일 혼례식을 치를 예정이고, 통일에 대한 긴밀한 강연을 갖는다. 함께 벼슬을 향상해 늘어 볼 계획이다. 또 한반도의 경제성장과 평양대와의 자매결연을 바라는 모든 용인대와의 활동으로 서로를 모르고 살아나야 한다"며 "전체 용산 학

## 30일(화) 노조 임시총회

## 동문교사 간담회

동문교사 간담회가 지난 25일(목) 6시 인터넷방송으로 진행되었다.

1800명의 동문교사가 참가한 이번 간담회는 △임시 흥미 대회 △영상을 등장 인원과 함께 상황을 담은 영상을 소개해 진행했다.

한편, 이어서 진행된 대동제 전야제는 △리프트 「네이버드」 △각 단체별 새내기 장기자랑 △외대 통기타단과 세월을 등이며 공연 △단체 공연 등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 일부 주민이 이재명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 인물동정

김영호 신입자원부 장관은 오는 25일(화) 오전 7시 30분부터 11시까지 브레스 서울호텔 3층 다이아몬드룸에서 세계경영대학원 주최 최고세계영지과 정·조찬행사에서 참석해 △개방화와 경쟁화 시대에의 산업정책의 방향 을 주제로 강연했다.

한편, 김우현 교수는 같은날인 25일(목) 프레스센터 국화홀에서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언론재단은 공동주최하는 「포럼과 미디어 윤리」를 주제로 한 원리포럼에 참석했다.

## 노동쟁의 발발심의

'단체협상 해결촉구'를 위한 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들의 참여는 성이 7일째를 맞고 있다.

지난 18일(화) 열린 7차 단체협상에서 노조는 상위단체 대학 노조간부들이 참가했음에도 학교와 입장차를 좁힐지 못해 다음날인 19일(수)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특히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자유로운 등록에서 일시총회와 8월 정정 시장에 입회를 이루지 못해 오는 30일(목) 5시 일시총회를 개최하고 노동협의 발발심의 및 결의에 관한 인건과 기타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학교측과 노조측이 지난 3월 16일(목)부터 시작된 이번 단체협상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시안은 교수가 알고 있는 행정적 저장작은 직원이 정 담되는 것과 총장 선출에서 직원이 참여하는 것을 포함해 △상급 단체 전원자 폐지 추가 △인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직원자녀 학자금 지원 등이다. 이와 관련 노동조합 수석자부장 실재영씨는 "풀까지만 원한 터를 바꿨고 있다"며 "침대방을 인출하는 자세가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부산과 대학생들의 이같은 춤을 시작으로 명지대 이공계의 음악

단 공연에 이어 조선대 학생들의 풍물

로 행사가 미쳤다.

현관 27일(토)에는 비가 오면서 관계로 죽구, 피구, 흔구 등의 결승전은 지루하게 됐으나 예선경기 결과 부산외대가 우승, 조선대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행사에 참여한 전병진(20)양은 "경기와 행사는 유익(유익)이나 놀랄 만큼 재미있었다"며 "이번 행사는 공연과 미디어 윤리"를 주제로 한 원리포럼에 참석했다.

문화부는 부산과 대학생들의 이같은 춤을 시작으로 명지대 이공계의 음악

단 공연에 이어 조선대 학생들의 풍물

로 행사가 미쳤다.

현관 27일(토)에는 비가 오면서 관계로 죽구, 피구, 흔구 등의 결승전은 지루하게 됐으나 예선경기 결과 부산외대가 우승, 조선대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행사에 참여한 전병진(20)양은 "경기와 행사는 유익(유익)이나 놀랄 만큼 재미있었다"며 "이번 행사는 공연과 미디어 윤리"를 주제로 한 원리포럼에 참석했다.

문화부는 부산과 대학생들의 이같은 춤을 시작으로 명지대 이공계의 음악

단 공연에 이어 조선대 학생들의 풍물

로 행사가 미쳤다.

현관 27일(토)에는 비가 오면서 관계로 죽구, 피구, 흔구 등의 결승전은 지루하게 됐으나 예선경기 결과 부산외대가 우승, 조선대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행사에 참여한 전병진(20)양은 "경기와 행사는 유익(유익)이나 놀랄 만큼 재미있었다"며 "이번 행사는 공연과 미디어 윤리"를 주제로 한 원리포럼에 참석했다.

문화부는 부산과 대학생들의 이같은 춤을 시작으로 명지대 이공계의 음악

단 공연에 이어 조선대 학생들의 풍물

로 행사가 미쳤다.

현관 27일(토)에는 비가 오면서 관계로 죽구, 피구, 흔구 등의 결승전은 지루하게 됐으나 예선경기 결과 부산외대가 우승, 조선대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행사에 참여한 전병진(20)양은 "경기와 행사는 유익(유익)이나 놀랄 만큼 재미있었다"며 "이번 행사는 공연과 미디어 윤리"를 주제로 한 원리포럼에 참석했다.

문화부는 부산과 대학생들의 이같은 춤을 시작으로 명지대 이공계의 음악

단 공연에 이어 조선대 학생들의 풍물

로 행사가 미쳤다.

현관 27일(토)에는 비가 오면서 관계로 죽구, 피구, 흔구 등의 결승전은 지루하게 됐으나 예선경기 결과 부산외대가 우승, 조선대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행사에 참여한 전병진(20)양은 "경기와 행사는 유익(유익)이나 놀랄 만큼 재미있었다"며 "이번 행사는 공연과 미디어 윤리"를 주제로 한 원리포럼에 참석했다.

문화부는 부산과 대학생들의 이같은 춤을 시작으로 명지대 이공계의 음악

단 공연에 이어 조선대 학생들의 풍물

로 행사가 미쳤다.

현관 27일(토)에는 비가 오면서 관계로 죽구, 피구, 흔구 등의 결승전은 지루하게 됐으나 예선경기 결과 부산외대가 우승, 조선대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행사에 참여한 전병진(20)양은 "경기와 행사는 유익(유익)이나 놀랄 만큼 재미있었다"며 "이번 행사는 공연과 미디어 윤리"를 주제로 한 원리포럼에 참석했다.

문화부는 부산과 대학생들의 이같은 춤을 시작으로 명지대 이공계의 음악

단 공연에 이어 조선대 학생들의 풍물

로 행사가 미쳤다.

현관 27일(토)에는 비가 오면서 관계로 죽구, 피구, 흔구 등의 결승전은 지루하게 됐으나 예선경기 결과 부산외대가 우승, 조선대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행사에 참여한 전병진(20)양은 "경기와 행사는 유익(유익)이나 놀랄 만큼 재미있었다"며 "이번 행사는 공연과 미디어 윤리"를 주제로 한 원리포럼에 참석했다.

문화부는 부산과 대학생들의 이같은 춤을 시작으로 명지대 이공계의 음악

단 공연에 이어 조선대 학생들의 풍물

로 행사가 미쳤다.

현관 27일(토)에는 비가 오면서 관계로 죽구, 피구, 흔구 등의 결승전은 지루하게 됐으나 예선경기 결과 부산외대가 우승, 조선대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행사에 참여한 전병진(20)양은 "경기와 행사는 유익(유익)이나 놀랄 만큼 재미있었다"며 "이번 행사는 공연과 미디어 윤리"를 주제로 한 원리포럼에 참석했다.

문화부는 부산과 대학생들의 이같은 춤을 시작으로 명지대 이공계의 음악

단 공연에 이어 조선대 학생들의 풍물

로 행사가 미쳤다.

현관 27일(토)에는 비가 오면서 관계로 죽구, 피구, 흔구 등의 결승전은 지루하게 됐으나 예선경기 결과 부산외대가 우승, 조선대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행사에 참여한 전병진(20)양은 "경기와 행사는 유익(유익)이나 놀랄 만큼 재미있었다"며 "이번 행사는 공연과 미디어 윤리"를 주제로 한 원리포럼에 참석했다.

문화부는 부산과 대학생들의 이같은 춤을 시작으로 명지대 이공계의 음악

단 공연에 이어 조선대 학생들의 풍물

로 행사가 미쳤다.

현관 27일(토)에는 비가 오면서 관계로 죽구, 피구, 흔구 등의 결승전은 지루하게 됐으나 예선경기 결과 부산외대가 우승, 조선대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행사에 참여한 전병진(20)양은 "경기와 행사는 유익(유익)이나 놀랄 만큼 재미있었다"며 "이번 행사는 공연과 미디어 윤리"를 주제로 한 원리포럼에 참석했다.

문화부는 부산과 대학생들의 이같은 춤을 시작으로 명지대 이공계의 음악

단 공연에 이어 조선대 학생들의 풍물

로 행사가 미쳤다.

현관 27일(토)에는 비가 오면서 관계로 죽구, 피구, 흔구 등의 결승전은 지루하게 됐으나 예선경기 결과 부산외대가 우승, 조선대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행사에 참여한 전병진(20)양은 "경기와 행사는 유익(유익)이나 놀랄 만큼 재미있었다"며 "이번 행사는 공연과 미디어 윤리"를 주제로 한 원리포럼에 참석했다.

문화부는 부산과 대학생들의 이같은 춤을 시작으로 명지대 이공계의 음악

단 공연에 이어 조선대 학생들의 풍물

로 행사가 미쳤다.

현관 27일(토)에는 비가 오면서 관계로 죽구, 피구, 흔구 등의 결승전은 지루하게 됐으나 예선경기 결과 부산외대가 우승, 조선대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행사에 참여한 전병진(20)양은 "경기와 행사는 유익(유익)이나 놀랄 만큼 재미있었다"며 "이번 행사는 공연과 미디어 윤리"를 주제로 한 원리포럼에 참석했다.

문화부는 부산과 대학생들의 이같은 춤을 시작으로 명지대 이공계의 음악

단 공연에 이어 조선대 학생들의 풍물

로 행사가 미쳤다.

현관 27일(토)에는 비가 오면서 관계로 죽구, 피구, 흔구 등의 결승전은 지루하게 됐으나 예선경기 결과 부산외대가 우승, 조선대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행사에 참여한 전병진(20)양은 "경기와 행사는 유익(유익)이나 놀랄 만큼 재미있었다"며 "이번 행사는 공연과 미디어 윤리"를 주제로 한 원리포럼에 참석했다.

문화부는 부산과 대학생들의 이같은 춤을 시작으로 명지대 이공계의 음악

단 공연에 이어 조선대 학생들의 풍물

로 행사가 미쳤다.

현관 27일(토)에는 비가 오면서 관계로 죽구, 피구, 흔구 등의 결승전은 지루하게 됐으나 예선경기 결과 부산외대가 우승, 조선대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행사에 참여한 전병진(20)양은 "경기와 행사는 유익(유익)이나 놀랄 만큼 재미있었다"며 "이번 행사는 공연과 미디어 윤리"를 주제로 한 원리포럼에 참석했다.

문화부는 부산과 대학생들의 이같은 춤을 시작으로 명지대 이공계의 음악

단 공연에 이어 조선대 학생들의 풍물

로 행사가 미쳤다.

현관 27일(토)에는 비가 오면서 관계로 죽구, 피구, 흔구 등의 결승전은 지루하게 됐으나 예선경기 결과 부산외대가 우승, 조선대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행사에 참여한 전병진(20)양은 "경기와 행사는 유익(유익)이나 놀랄 만큼 재미있었다"며 "이번 행사는 공연과 미디어 윤리"를 주제로 한 원리포럼에 참석했다.

문화부는 부산과 대학생들의 이같은 춤을 시작으로 명지대 이공계의 음악

단 공연에 이어 조선대 학생들의 풍물

로 행사가 미쳤다.

현관 27일(토)에는 비가 오면서 관계로 죽구, 피구, 흔구 등의 결승전은 지루하게 됐으나 예선경기 결과 부산외대가 우승, 조선대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행사에 참여한 전병진(20)양은 "경기와 행사는 유익(유익)이나 놀랄 만큼 재미있었다"며 "이번 행사는 공연과 미디어 윤리"를 주제로 한 원리포럼에 참석했다.

문화부는 부산과 대학생들의 이같은 춤을 시작으로 명지대 이공계의 음악

단 공연에 이어 조선대 학생들의 풍물

로 행사가 미쳤다.

현관 27일(토)에는 비가 오면서 관계로 죽구, 피구, 흔구 등의 결승전은 지루하게 됐으나 예선경기 결과 부산외대가 우승, 조선대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행사에 참여한 전병진(20)양은 "경기와 행사는 유익(유익)이나 놀랄 만큼 재미있었다"며 "이번 행사는 공연과 미디어 윤리"를 주제로 한 원리포럼에 참석했다.

문화부는 부산과 대학생들의 이같은 춤을 시작으로 명지대 이공계의 음악

단 공연에 이어 조선대 학생들의 풍물

로 행사가 미쳤다.

현관 27일(토)에는 비가 오면서 관계로 죽구, 피구, 흔구 등의 결승전은 지루하게 됐으나 예선경기 결과 부산외대가 우승, 조선대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행사에 참여한 전병진(20)양은 "경기와 행사는 유익(유익)이나 놀랄 만큼 재미있었다"며 "이번 행사는 공연과 미디어 윤리"를 주제로 한 원리포럼에 참석했다.

문화부는 부산과 대학생들의 이같은 춤을 시작으로 명지대 이공계의 음악

단 공연에 이어 조선대 학생들의 풍물

로 행사가 미쳤다.

현관 27일(토)에는 비가 오면서 관계로 죽구, 피구, 흔구 등의 결승전은 지루하게 됐으나 예선경기 결과 부산외대가 우승, 조선대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행사에 참여한 전병진(20)양은 "경기와 행사는 유익(유익)이나 놀랄 만큼 재미있었다"며 "이번 행사는 공연과 미디어 윤리"를 주제로 한 원리포럼에 참석했다.

문화부는 부산과 대학생들의 이같은 춤을 시작으로 명지대 이공계의 음악

단 공연에 이어 조선대 학생들의 풍물

로 행사가 미쳤다.

현관 27일(토)에는 비가 오면서 관계로 죽구, 피구, 흔구 등의 결승전은 지루하게 됐으나 예선경기 결과 부산외대가 우승, 조선대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행사에 참여한 전병진(20)양은 "경기와 행사는 유익(유익)이나 놀랄 만큼 재미있었다"며 "이번 행사는 공연과 미디어 윤리"를 주제로 한 원리포럼에 참석했다.

문화부는 부산과 대학생들의 이같은 춤을 시작으로 명지대 이공계의 음악

단 공연에 이어 조선대 학생들의 풍물

로 행사가 미쳤다.

현관 27일(토)에는 비가 오면서 관계로 죽구, 피구, 흔구 등의 결승전은 지

외대학보 2000년 5월 30일 765호

제2건학 기획단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서(안) 분석

## 핵심사안 빠져있다

매었지 않나.

현재 용인비래터 중복대학 문제는 기획단이 관련 학과 등 이론수업의 과정을 기리는 둘째 중복대학 조정의 필요성을 학과가 된 삶이다. 제 23학기 학회단장 성향 교수는 “논의가 계속되는 둘째 이론수업 교수단은 자체적인 도와, 다른 실증적 학과 이 세가지 정도로 충분히 상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 배우자는 충족생과 의견을 보이고 있는 등 이 시안이 결정되기까지 앞으로 상당수 교수단은 의견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LG컨설팅단은 대학원 문제에 대해

외대발전 5년기안이 발표되었지만 핵심적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방진안’이라 이름을 부여해 주고 있다. 당시 밤 표지 시사보다 3월 6일 늦게 발표된 의견수렴 과정에서 진술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 논의는 해당되었던 약 배움터 중복대학, 대학원 문제 등에 대해

뜻밖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구성원들에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충족생 수준지부장 심재영씨는 “이번 발표안은 대학원 학생 내용은 있는 듯 같다. 학교법학원분과 구조조정이 해결되면 행정조직 개편이나 인원감축의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결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중장기 계획이도 기본적인 방향의 컨셉은 LG 컨설팅단

에 제시되었던 것과 동일하게 수우한 신

입생을 확보하여 명예대학으로서의 위

상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수

의 연구, 경영학 강화 등의 방향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이번 발전방향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구조조정과 세밀개선의 부분이다.

이 부분에 있어 중복대학과 통폐합과 대학원 문제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발전안에도 서술하였듯은 항후 연구중심대학, 용인대학교는 실용중심대학으로

학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연구

중심의 핵심이 되는 대학원 문제와 실

용중심을 학교성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

된다.

박수원 기자 soma-j@hanmail.net

은 방방간에 세웠을 뿐 구체적인 내용

이 없다는 평가는 대부분이었다. 특히

중복대학과 통폐합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불만이 고장되고 있기 때문에 일방울터 학생들은 의견이 공유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관련 서설에서는 충족생학장 김운현(사회·신문 4군)은 “전체계획안에 재정에

대한 표기조차 빠져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충족생 조정체가 공정화를 거친 후 후속조치를 취할 경우 표

했다.

한편, 용인울터 충족생학장과 서울

울터는 5년을 내다보는 발전계획이라고

보기에는 중요한 부분들이 복합화해 드

러나 있지 않다.

앞으로 제2건학기획단은 공정화와 강

석회화를 주제로 한 학과와 함께

우선부의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다.

위에서 드러나듯이 이번 발표된 보고

서에는 5년을 내다보는 발전계획이라고

보기에는 중요한 부분들이 복합화해 드

러나 있지 않다.

그러나 그러나 교수단의 김정희장(

일본어·교수)과 대학원총학생회 강

석회화회장은 이숙경 전이사장이 달라진

점이 무엇이든 박사와 관계를 차단하

기 위한 확실한 대책이 있는지를 추궁

했다.

또한 종·정기발전안과 관련 제2건학

기획단의 최종안이 겹쳤으나 최종안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 우리가 만드는 대동제(?)

지난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서울배움터 곳곳에서는 ‘내가 만드는 우리가 즐기고 의하기’ 함께 하는 2000 대동제가 진행되었다. 위는 모 성당체의 힘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인천 충북대학의 주관으로 타당한 협업체의 꿈을 하고 있는 모임이다. 과연 우리가 만드는 대동제인지를 생각해 볼 일이다.

최현경 기자 skydawn21@hanmail.net

## 외대는 지금 동맥경화증

### 전체 구성원 이해 공유하는 대학평의원회서 실질적 논의 이루어져야

그 당시 일련의 학내 헛됨에 대해 구

성원들이 죽음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목) 열린 대학평의원회에

‘내대국립’

의원회와의 협의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표명되었다.

이날 대학평

의원회는 모임에만 의의를 두었을 뿐

실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가였다.

본부으로 크게 스구 대구석력 척척△

증·정기 발전안은 소분란인증 등이

상정되었는데, 이와 관련해

구악세력 척척과 증·정기 발전안

논의에는 학생, 교수, 직원 대표 모두

봉정이 간수로 개별화되거나 떠나간

도 날카롭게 반발했다.

먼저, 구악세력 척척에 대한 논의 내용

을 본다면, 학생들은

‘내대국립’

의원회와의

협의체가

제작된

업체의 자금지원 등이 비판되었다.

98년 재단부정이후 건설된 대학평의원회

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학내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의의가

졌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가 주어지지 않고

심의하고 결의하는 수준에서 무마된다

보면, 본부는 현재 경쟁 결정된 상태이다.

이에 충족생 조정체가 공정화를 거친 후 후속조치를 취할 경우 표

했다.

98년 재단부정이후 건설된 대학평의원회

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학내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의의가

졌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가 주어지지 않고

심의하고 결의하는 수준에서 무마된다

보면, 본부는 현재 경쟁 결정된 상태이다.

한 대표는 ‘우리대학은 지금 통

맥경화증에 걸렸다’며

말했다.

한편, 용인울터 충족생학장과 서울

울터는 5년을 내다보는 발전계획이라고

보기에는 중요한 부분들이 복합화해 드

러나 있지 않다.

그러나 그러나 교수단의 김정희장(

일본어·교수)과 대학원총학생회 강

석회화회장은 이숙경 전이사장이 달라진

점이 무엇이든 박사와 관계를 차단하

기 위한 확실한 대책이 있는지를 추궁

했다.

또한 종·정기발전안과 관련 제2건학

기획단의 최종안이 겹쳤으나 최종안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월경 박사와의 접

행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구성원

은 남지 않았고 내년 8



서울배움터 대동한마당



▼총~벽

티안 불꽃포를 순식간에 으흐 시험하다. 점점 더워지는 여름에 맞춰 우리들의 디워도 기습을 부린다. 내 환을 받쳐 주위의 학생들에게 웃음을 안겨주고 물쪽포로 시원함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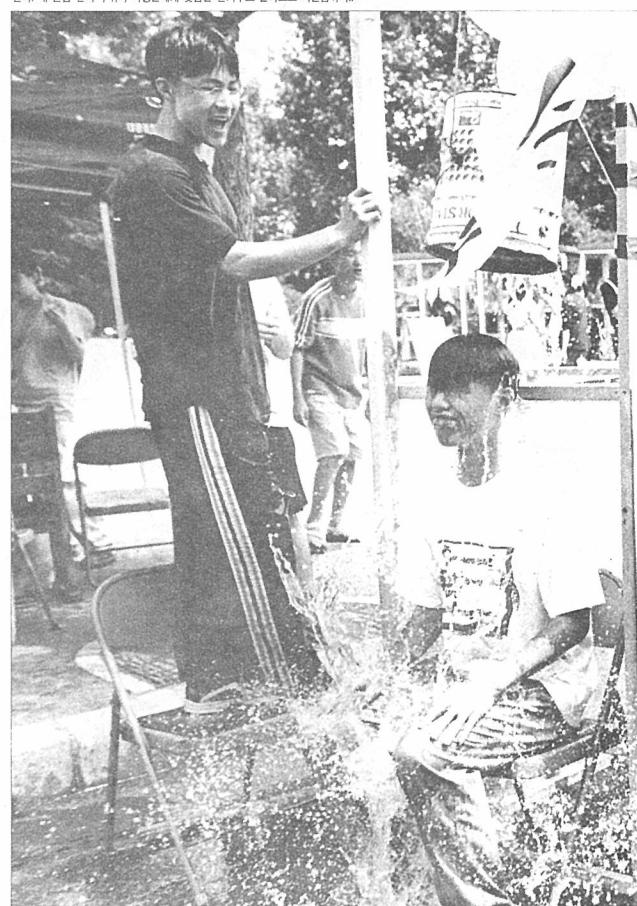
제작

사진부



◀벌대, 변창하길..

대동제 기간 중에 벌대가 사회 과학관 앞에서 고사를 내는 모습. 학생들만 참여하는 대동제가 아닌 스승과 제자와 함께 하는 대동제가 인상적이었다.  
"교수님, 돼지머리에 길속이 두둑하게 꽂아주세요"





6-7

2000년 5월 30일 765호

## 주제기획

# 한국판 범죄식



한총련 의장님 인터뷰

대중 속에 더 깊이 뿌리내려야···



1170-1171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한 대축전의 정”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치러진 한총련 출범식을 이희철 의장(조선대 총학생회장)은 이렇게 표현한다. “96년 연대항쟁을 겪은 후 정권의 사상이데올로기 공세와 물리적 공세를 비롯 98년, 99년 핵심일꾼을 다 잡아가는 전후한

공안단장 숙에서도 한총련은 이를 투쟁으로 둘 폭파했다"고 설명을 더한다. "정권은 우리를 더 이상 부정할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하며 평화적 개최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부산에서 몇날 몇일을 거리에서 무장할 계획까지 하고 있었다"며 평화적으로 대중적인 축제의 꿈을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이번 출범식 준비기간 동안 과학생회 간담회, 강의실 출판권 등을 통해 한총련의 투쟁 내용과 정당성을 대중들과 함께 직접 이야기하려고 노력했다는 이회철 의장은 부산대에서 며칠동안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워낙 제단언론이 때로한 뒷면에 한총련에 대해 인식이 풀지 않았다. 그러나 한총련의 투쟁에 대해 어느정도의 얘기를 나눴더니, 직접 보

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진술하게 학우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한층더나 대중속에 더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 축제의 장, 대동의 장, 두쟁의 장에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의논하는 이란 학급주의·민족주의·분노론의 핵심은 민족적 단체의 통일을 실현하는 자립과 고민이다. 민족주의의 반미감정은 국도로 높아지고 있는데 그 요구에 회답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서 번미 광장사업, 번미 강좌, 동학에서 번미로 토론회, 양민학살순례 순례, 매체인 폭력자리에 순례 등을 진행했지만 더욱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전한다.

“민중들의 반미 감정을 민족적 분노로 일으

지난 26일(금)부터 28일(일)까지 2박3일간 부산대에서 한총련 출범식이 열렸다.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의 축제인 이 행사에 우리학교 양 배출부터 150명이 참여해 대동의 정, 투쟁의장을 함께 만들었다. 이에 우리학교 주수미 이성양·스킨드니비어 2)의 일기를 실었다.

# 제작전

소중한 우리 민족의 목숨을 빼앗아 관한 내용이었다. 이제까지의 공연 없는 공연이었지만 월급이라 이 공연을 만큼, 모두가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미군에 의해 학살당하는 우리는 원주민 같은 불을 차지해 어려운 시기에서 살았던 우리 할아버지들처럼 고생하면서 헌신한 의사들이니 태어났고 있었던 헬로우 생크기들 태우면서 아일랜드 전진했고 임숙마리아까지 몇 밤간과 함께온 출범선언문을 낭독으로 어우러지는 대동의 춤판으로 마무리

로 아침식사를 하고 출발식 성사 보부산 인민들을 만나거나 부산 시내에 의의로 아주 좋았다. 학생들을 보면서 한 학생들에게 출발식 평화 만들었다. 시내 선전전을 끝나고 우리는 서로로 향했다.  
당 죽제의 영이었다.  
없었던 사람일지도 그  
는 숨에 한총련이 바로  
라. 군 및 단위 술한  
죽곳이 이거제에서  
가게 되었으니  
죽전"이라 하

100

100

100

기트재이 편여진 스 있는 트재이 것이다

“율법민족대회는 작품보다 더욱 대중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만족 통일에 있어 평화를 기로마는 주한미군을 물아내는 투쟁은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범민족대회 추진본부를 각 대학에서 먼저 이행동활동을 기점으로 결성하고, 조국통일 3대헌장 대토론회, 범민족문화 등을 일구어 갈 것이다.

이야기를 마치며 이희철 의장은 “한총련은 민중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자주적 대중 조직이다. 한총련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한총련의 정당한 투쟁을 지켜보면서 넓은 인으로부터의 조직으로 받아 안았으면 좋겠다”고 백민 청년학생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 8기 한충련 출범식



### 부대행사 보도

#### 한충련 박람회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되었다.

**한충련관**·기자각책의 풍선으로 아치기둥을 만들어 모인들 내 한충련관은 소개, 역사, 국가보안법 철례 등 디자인으로 구성되었다. 출판부·청소년관은 한충련관은 단연 가장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첫 미팅 한충련이 아름답웠어여 예상은 절대한 한충련 1년생 역사 정기 8기 일시체계 건설부터 출범식까지 이어지는 기간의 과정, 한충련 의장 사진전과 깨비커처 등을 전시했다.

정상대 안지현(법학 1)양은 “대표자를 가볍게 느끼고 믿음을 싣어주는 사진전이 인상깊다”고 전했다. ‘착한 한충련’을 괴롭히는 다른 국가보안법 대회에서는 그들이 보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집중전과 한충련 이적증명 부당 등에 관한 자료가 전시되었다. 마지막 이적증제 한충련이 이런 세상을 만들었나에서는 저자·민주·봉인 글자에 학생들이 직접 비단비를 페어 꽂은 행사도 진행되었다.

**과별체관**·‘학생회 활동으로 학생운동을 대중화하라’라는 취지로 열린 곤짜기관은 전국 여러 대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과 학생회 모습을 전시했다. 학생회 활동의 모범으로 발굴된 학생들은 부산대 한충우주공학과, 경남대 경제학과, 울어대 경영학부,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울산대 기계공학부, 조선대 한국국문학과와 무역과 등이다.

진사된 각 과의 ‘곤짜기’ 활동을 살펴보면 부산대 한충우주공학과는 학생회 활동을 주로 활발한 과 활동을 펼쳤다. 믿을 쌓기·별찾아하기·로켓 만들기 등 독특한 예비 대학 행사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한충련과 과별체관 활동에 신분당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소모임 ‘꽃’은 멀지, 멀지, 멀지 등을 통해 토론을 전시하였다. 꽃과 곤짜기관은 관립한 전시대 한 학생은 전시된 다양한 사업과의 모범을 따라 우리 과별체관도 시행해 보고싶다”고 밝혔다.

**조국통일관**·재임세있던 구성과 부산대 학우들의 즐비가 단연 눈에 띈 전시되었던 것이다. 첫 미팅 우수민족 바로앞기에서는 사진으로 보이는 이복의 생활을 보여주며 동갑

감을 느끼게 하는 자리였고 두 번째 미팅 ‘통일 어떻게 하는 겁니까’에서는 저자·평화·민족대 단결의 조성으로 평화로운 남북정상화회담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기 쉽게 풀이해 해놓았다. 세 번째 미팅 조국통일과 함께 달려온 청년학생은 88년 6·10 남북청년학생회담을 이후로 2000년 조국통일의 새로운 조국통일과 청년학생의 역사를 한 눈에 알 수 있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심리테스트, 통일구상 IX포럼체제, 북한친구에게 업서쓰기 등 다양한 행사들이 전시되었다.

특히, 시장양양화와 학생들의 복학 및 음식만드는 법에 대한 자보·건강증화와 학생들의 행양시가지 모형도 기계화 학생들의 조례현장 가방팀, 동어기 전시분야 학생들의 통일지도 등 준비한 부산 대 학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져 알찬 내용을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이밖에 주한미군 범파, 선우배가 함께하는 문예이야기 등의 강연회와 ‘불가사리’, ‘보심각’ 등

의 이북연회가 상영되기도 하였다.

#### 농노학 축구대회

#### 농노학 축구대회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되었다.

**한충련관**·기자각책의 풍선으로 아치기둥을 만들어 모인들 내 한충련관은 소개, 역사, 국가보안법 철례 등 디자인으로 구성되었다. 출판부·청소년관은 한충련관은 단연 가장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첫 미팅 한충련이 아름답웠어여 예상은 절대한 한충련 1년생 역사 정기 8기 일시체계 건설부터 출범식까지 이어지는 기간의 과정, 한충련 의장 사진전과 깨비커처 등을 전시했다.

정상대 안지현(법학 1)양은 “대표자를 가볍게 느끼고 믿음을 싣어주는 사진전이 인상깊다”고 전했다. ‘착한 한충련’을 괴롭히는 다른 국가보안법 대회에서는 그들이 보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집중전과 한충련 이적증명 부당 등에 관한 자료가 전시되었다. 마지막 이적증제 한충련이 이런 세상을 만들었나에서는 저자·민주·봉인 글자에 학생들이 직접 비단비를 페어 꽂은 행사도 진행되었다.

**과별체관**·‘학생회 활동으로 학생운동을 대중화하라’라는 취지로 열린 곤짜기관은 전국 여러 대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과 학생회 모습을 전시했다. 학생회 활동의 모범으로 발굴된 학생들은 부산대 한충우주공학과, 경남대 경제학과, 울어대 경영학부,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울산대 기계공학부, 조선대 한국국문학과와 무역과 등이다.

진사된 각 과의 ‘곤짜기’ 활동을 살펴보면 부산대 한충우주공학과는 학생회 활동을 주로 활발한 과 활동을 펼쳤다. 믿을 쌓기·별찾아하기·로켓 만들기 등 독특한 예비 대학 행사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한충련과 과별체관 활동에 신분당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소모임 ‘꽃’은 멀지, 멀지, 멀지 등을 통해 토론을 전시하였다. 꽃과 곤짜기관은 관립한 전시대 한 학생은 전시된 다양한 사업과의 모범을 따라 우리 과별체관도 시행해 보고싶다”고 밝혔다.

**조국통일관**·재임세있던 구성과 부산대 학우들의 즐비가 단연 눈에 띈 전시되었던 것이다. 첫 미팅 우수민족 바로앞기에서는 사

진으로 보이는 이복의 생활을 보여주며 동갑 감을 느끼게 하는 자리였고 두 번째 미팅 ‘통일 어떻게 하는 겁니까’에서는 저자·평화·민족대 단결의 조성으로 평화로운 남북정상화회담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기 쉽게 풀이해 해놓았다. 세 번째 미팅 조국통일과 함께 달려온 청년학생은 88년 6·10 남북청년학생회담을 이후로 2000년 조국통일의 새로운 조국통일과 청년학생의 역사를 한 눈에 알 수 있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심리테스트, 통일구상 IX포럼체제, 북한친구에게 업서쓰기 등 다양한 행사들이 전시되었다.

특히, 시장양양화와 학생들의 복학 및 음식만드는 법에 대한 자보·건강증화와 학생들의 행양시가지 모형도 기계화 학생들의 조례현장 가방팀, 동어기 전시분야 학생들의 통일지도 등 준비한 부산 대 학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져 알찬 내용을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이밖에 주한미군 범파, 선우배가 함께하는 문예이야기 등의 강연회와 ‘불가사리’, ‘보심각’ 등

의 이북연회가 상영되기도 하였다.

### 한충련 출범식에서 만난 사람들

#### ●서울비움터 새나기 최진현(사회·신병)

한충련 출범식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작성에는 많이 망설였지만 1년에 딱 한번 열리는 촉제의 장을 경험해보라는 선배의 말에 귀에 깊이 술깃들여서 오게 되었다.

#### 이곳의 느낌은?

고등학교 때 스포츠를 통해 보고 들었던 집회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 농민들을 돋우고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이야기 하는 누나, 형들이 왜 나쁜 사람들이 인간기 끔금이 생각하게 해 주었다.

#### 기장 좋았던 행사

노동자, 농민, 학생 축구대회였다. 솔직히 경기중에는 이 행사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할 겨우에 않았다. 하지만 경기 결과 고기 위생대보보니 그날 운동경기나 아니라 농민분들과 같이 뛰면서 진정한 ‘연대’가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 앞으로 한충련 행사에 바라는 점은

한충련이 주장하는 것, 하는 일들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 학교에 들어가서는 계획은

여기서 느낀 점과 경험들을 동기들에게 솔직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그것을 통해 폭력적이다. 이것이야 하는 등es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이나마 바꾸어주고 싶다.

#### ●원인비움터 새나기 이동수(인문학부 1)

8기 한충련 출범식에 꽃을 든 동기와 같은 계적이 어떠했는지 궁금하다

전국 모든 대학생들의 축제의 장이라는 선배의 설명에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솔직히 아직 아는 게 별로 없지만 물론으로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다. 오는 과정에서는 경희대와 함께 있는데 중간에 전투경험과 물싸움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개를 조금 다쳤다. 한충련이 하는 행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무조건 가로막는 경권에 대해 실망했다. 하지만 힘든 과정을 거쳐 부산대에 들었을 때는 잘 기뻤다.

#### 이 지역에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

‘사람생애’란 부분에 가장 많이 느꼈다. 많이 개별화된 요즘 대학사에서는 알기 힘든 접두사의 힘을 알게 됐다.

#### 앞으로 학교에 들어가서는 어떠한 활동을 할 생각인가

학생회원으로 적극 협력하고 싶다. 또 과 동기들과 한충련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 싶다.

#### ●부산대생 양영기(국어)

8기 한충련 출범식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취업을 고려해 두고 행사를 바라보고 있는 나로도 때문이지 않은 순수한 열정이 보기 좋다는 생각

이었다. 이런한 생각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지속되기를 바란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부산시민 유흥호(국어)

8기 한충련 출범식에 부산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부산대생으로서 드는 생각은

취업을 고려해 두고 행사를 바라보고 있는 나로도 때문이지 않은 순수한 열정이 보기 좋다는 생각

이었다. 이런한 생각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지속되기를 바란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부산시민 유흥호(국어)

8기 한충련 출범식에 부산대에서 열리는데 부산대생으로서 드는 생각은

취업을 고려해 두고 행사를 바라보고 있는 나로도 때문이지 않은 순수한 열정이 보기 좋다는 생각

이었다. 이런한 생각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지속되기를 바란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 ●한충련에 바라는 점은

한국부총리관, 조국부인관, 학자관, 한충련관, 과별체관, 민중관, 역사관이 대학 곳곳에서 전시된다.









00 서울배움터 통일노래한미당 '자주상' 수상곡

## 너의 대답은

글·곡  
인도어과 노래파 '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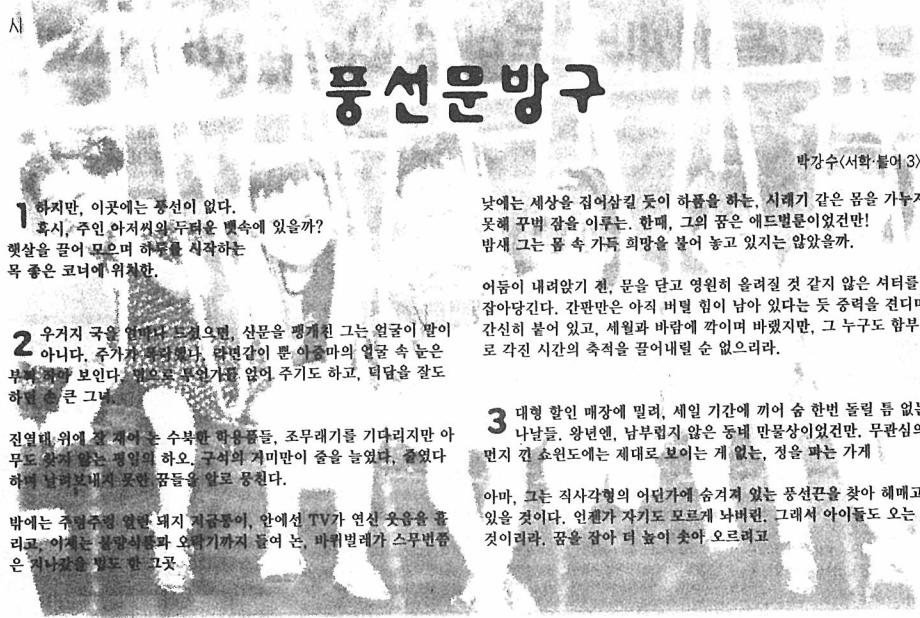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eight staves of music in 4/4 time with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each staff. The first staff starts with A, D, Bm, Em, A. The second staff starts with D, Bm, Em, A. The third staff starts with Em, A, G, A7. The fourth staff starts with Bm, G, Bm, G. The fifth staff starts with Bm, G, Em, A, E. The sixth staff starts with A, E, F#m, D, B, E. The seventh staff starts with A, E, F#m, D, D, E. The eighth staff starts with A, E, F#m, D, E.

일고 있니 내 친구 아 내가 이 노랠 부르는 이유를 듣고 있니 내 친구 아 너를 부르는 내 만의 목소리 아무 말지 않게 오늘을 살 아가는 우릴 봐 우네  
벽 냄비 풀드는 노을 이내 어색 위로 부서져도 무관심 망설임 속에서 무관연 체나내 생각 만 하지  
아침에 물을 넣었어 봄 가든 꽃들을 봄에 봄 가동 모드를 걸었어 봄 차운 차  
지나쳤던 그 아름다움이 이젠 내 눈을로 이젠 너의 눈을로 난 알고 있었지 숨겨진 너의 마음을 내 안에 감춰진 온기를  
봄 일로 향하는 밤길에 너 함께 가 줄래



## 노랫말 설명

‘문득 북녘의 친구들에 대해 너무도 무관심한 우리들의 모습을 느꼈다. 이 곡은 그런 나의 친구들에게 ‘통일의 길에 함께하자’고 쓰는 편지의 내용이다.’



## 풍선문방구

박강수(서학·불어 3)

낮에는 세상을 접어삼킬 듯이 하품을 하는, 시레기 같은 몸을 가누지 못해 꾸벅 잠을 이루는 한때, 그의 꿈은 에드벌룬이었건만!  
밤새 그는 몸 속 가득 희망을 불어 놓고 있지는 않았을까.

어둠에 내려앉기 전, 문을 닫고 영원히 울려질 것 같지 않은 서터를 잡아당긴다. 간판만은 아직 벌써 힘이 남아 있다는 듯 중력을 견디며 간신히 붙어 있고, 세월과 바람에 각이며 바랬지만, 그 누구도 함부로 각진 시간의 축적을 끌어내릴 순 없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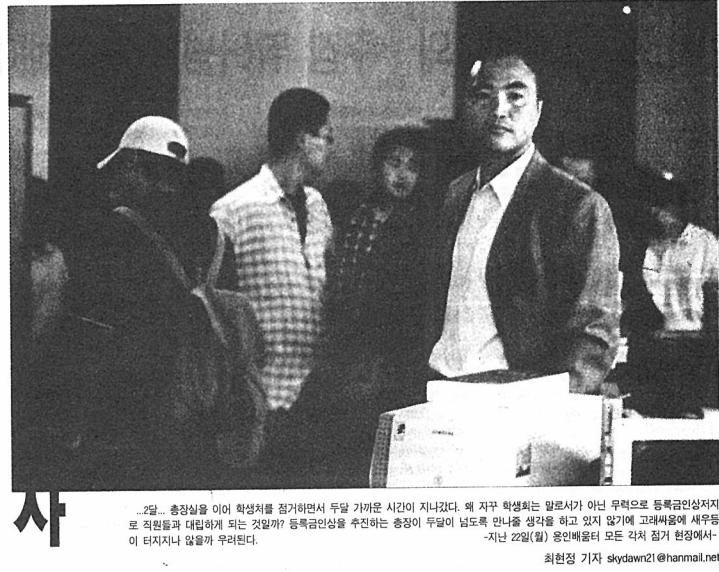
**3** 대형 할인 매장에 밀려, 세일 기간에 끼어 숨 한번 돌릴 틈 없는 남들. 왕년엔, 남부럽지 않은 동네 민물상이었건만, 무관심의 면지 진 소원도에는 제대로 보이는 게 없는, 정을 파는 가게

아마, 그는 직사각형의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풍선꾼을 찾아 헤매고 있을 것이다. 인젠가 자기도 모르게 뇌버린 그에게 아이들도 오는 것이리라. 꿈을 잡아 더 높이 쏟아 오르려고

혼자보기 아깝다

혼자만 감상하기 아까운  
외대인의 작품을 찾습니다.  
문화작품, 서예, 미술, 광고 등  
모든 종류의 작품을  
학보에 실어보십시오.

마감은 금요일 오후까지구요, 학생회관 2층  
학생기자실로 가져오거나 컴퓨터 통신(나우 누리, 하이텔: oedae)으로도 원고를 받으니다. 체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2달... 총장실을 이미 학생처를 점거하면서 두달 가까운 시간이 지나갔다. 왜 자꾸 학생회는 일로서가 아닌 무력으로 등록금인상지지로 직원들과 대립하게 되는 것일까? 등록금인상을 추진하는 총장이 두달이 넘도록 만나줄 생각을 하지 않기에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 지난 22일(월) 용인배움터 모든 각처 점거 현장에서-

최현정 기자 skydawn21@hanmail.net

· 용인배움터 대동제 자체화 들여다보기

## 내가 만들어가는 우리의 축제!!



## 노현극장

5월 31일 - 아의통일영화제  
6월 1일 - 푸른 애벌레의 꿈 노래하기  
· 원산 민중 기요제

